

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4년 4월 30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4년 4월 23일

나. 제 안 자: 박주선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4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4. 4. 30.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: 박주선 의원)

□ 제안이유

오늘날 1회용품¹⁾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, 1회용품 사용 저감에 앞장서는 환경보호우수업소를 선정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수립 범위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
나. 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
1) 1회용품: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
- 1회용 컵·접시·용기/ 1회용 나무젓가락/ 1회용 봉투·쇼핑백/ 이쑤시개(전분성분 제외) 등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- 나. 협조부서: 자원순환과
- 다. 입법예고: 2024. 4. 23. ~ 4. 29.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권오숙)

가. 제정취지

- 최근 배달 및 카페 문화의 확산으로 급증하는 1회용 플라스틱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자,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관내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「1회용품 사용저감」을 이끌고자 함

나. 주요 제정내용

-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이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하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」에 환경보호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신설하였음
- 안 제7조에서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(집단급식소, 식품접객업, 대규모점포 등)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

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에는 위 업소를 우수업소로 지정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p>제7조(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우수업소(이하 “우수업소”라 한다)로 선정할 수 있다.</p> <p>1.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</p> <p>2.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</p> <p>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p>1.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</p> <p>2.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</p> <p>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p>

제7조·제8조 (생략)

제8조·제9조 (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)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최근 포장(TAKE-OUT) 및 배달문화의 확산 등으로 1회용컵, 봉투, 접시·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,²⁾ 해당 물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업소를 ‘우수업소’로 지정하여 관내 1회용품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고자 하는 것임
-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하여 ‘중장기 단계별 계획(로드맵)’을 수립·시행하고 규제를 이어오다, 지난 '23년 11월 7일 환경부는 획일적인 사용규제 대신 권고 및 자율감량 패러다임으로 관리를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음
- ※ 식품접객업의 종이컵, 플라스틱 빨대와 종합소매업의 1회용 봉투·쇼핑백에 대한 규제 완화
- 이번 개정안으로 관내 환경보호 우수업소 선정을 통해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, 1회용품 감량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 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2) 「1회용품」 발생량 추이

- 생활폐기물 중 일회용품 발생량은 703,327톤/년 _ 제6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(2022년 기준)
- 일회용 손가락 공급량: 5,043톤('19) → 7,196톤('21)
- 일회용 컵 사용량: 약 7억 7,311만 개('19) → 약 10억 2,388만 개('21) _ 18개 자발적 협약업체 기준

□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10조(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,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1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
2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·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
3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(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)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
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
5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
6.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

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1.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·판매·배달하는 경우. 이 경우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·판매·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2.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
3.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(대통령령으로 정

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